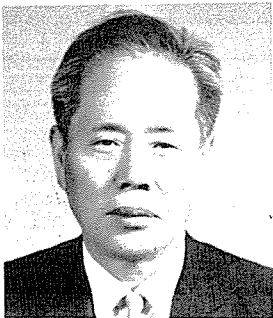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급진과 진흥에 맞는 사회적 체질개선이 시급”



安東赫
(科總고문)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매우 어렵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 지금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과학기술혁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위기의 형성과 확대,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도 과학과 기술이 밀착되어 있어, 이 문제로 열띤 논란이 가끔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의 제어는 커녕, 형세는 총력적인 과학기술전쟁으로 달리고 있어 인류의 생사가 여기에 걸려든 모습이다.

한편 금세기 후반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인문 사회과학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그 과학과의 관련면에서, 귀납법과 논리실증론을 격하시키고, 구조주의를 대체한 일은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기술의 행사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상, 이제는 과거 과학기술의 중성적인 일은 허용될 수 없어, 응분의 책임과 발언권을 사회에 대하여 갖게 되었다. 그리고 기술 또는 공학이 모든 지식의 실제적 작업방식인 이상, 모든 인간활동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기술의 諸 학문 및 예술과의 교류를 깊게 하여, 결국 문화의 종합화를 가능케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으로의 우리사회의 운명이 첨단기술개발에 달려 있음은 확실하다. 이를 이루려면 그 원천이 기초과학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60년대까지 국내과학기술은 외국의존을 능사로 여겼다. 최근 15년동안 정부가 진흥시책을 주도 하였다. 그러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될것을 늘 유념하여야 할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과학기술진흥에 힘쓰는 동기는 우선 공리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인간의 알고자 하는 본성, 창조하고자 하는 본성에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개인적 특수성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해낼 수 있게 꿈 꾸러나가는 특질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 일의 여건이 간추려져 있어, 단순하고, 실패가 적어, 사실은 다른 학문분야보다 하기 쉽고, 안전한 분야이다. 선진사회는 이렇게 단능적인 과학기술을 천직으로 삼고, 즐길 수 있게끔 적절한 풍토가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내걸은 실익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사회적인 기풍이다. 우리에게서 이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미끼의 나열만으로는 케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근년에는 세계풍조에 덩달아, 과학기술은 그동안 그럴사했던 성의도 벗겨 져서, 청소년층의 매력을 상실하고, 그 종사자의 정열도 차원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필수교양이 되어가는 추세와 어긋나는 현상인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학술적 근거를 실용주의를 넘어서, 깊게 따져서, 그 위치를 정립할 필요를 느낀다.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교양을 높이고, 이를 애호하는 기풍을 이 땅에 일으켜야 함은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별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존중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의거하려는, 현대적 체질의 구체적인 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철저 하고자 하는 합리성으로의 급진은 사실상 인간혁명, 사회혁명을 뜻한다. 무작정 과학기술도입으로 전통사회를 무너뜨린 사례도 있으므로, 여기에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배려가 요청되는 것도 사실이다. 해방후 우리사회의 변동은 매우 급속했지만, 질적인 격동은 7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작용이 제법 침투되면서 부터이며, 금일의 우리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이 과학기술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부작용 없

이 필요한 과학기술만 똑 따온다는 생각은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에서 보듯이 공상적이다. 과학기술이 문화이며, 전통문화란 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탄력성을 지니고, 이질문화와 교류 발전해 나가야 존재할 수 있으며, 다만 탄력성의 한계를 보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밌만 생각한다』하고, 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흔히 쓰이는 것이 있는데, 방편에 치우친 것 이어서, 옳지 못한 태도이다. 그러나 아무튼 현실은 매우 착잡하여 외골수로만 갈 수 없는 경우에 가끔 부딪친다. 사실 재밌에 맛을 드리다 보면, 염불도 재미를 부치게 될 수도 있으나, 뜻이 있어야 된다. 더우기 급하다 하여 『우물에서 송충 달라』하면, 전문가라는 자가 우물에서 송충 떠주는 시늉을 하여, 서로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체하는 짓은, 유독 우리사회에서 특히 요즘 흔한 모습이다.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이어서, 급한 고비가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파멸이 다가올 뿐이다. 나는 이러한 우리속에 담겨 있는 허황하고, 엉뚱하고, 성실치 못한 비과학적 기질을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을 통감한다.

다시 거듭하여, 과학기술의 빠른 진흥이 요긴한 현재, 이에 적합한 체질개선이 우리사회에 요청된다. 우리가 범사에 정성을 기우려, 실증적 자세로 일하고, 그 결과가 정당하게 평가·활용되어 우리사회가 과학기술과 더불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자연법칙에는 조작이 없다. 誠者 天之道也.
정성은 사람의 도리이다. 誠之者 人之道也.
이는 옳은 것을 가려
고집하는 자이다. 擇善而 固執者也.